

‘월급만 1억원’ 직장인 건보료 310만원 부담 지난해 2500명 육박

**보수월액 보험료 기준 최고액 부과
직장인 가입자 상위 0.01% 해당**

월급만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인 가입자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으로 25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으로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매달 781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만

월 239만원을 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년(前年)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게 맞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 하도록 했다.

이런 자동 조정장치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1월부터는 월 318만2760원으로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기준소득(월 7810만원 이상)도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10만원가량)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서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국내공급 끊긴 ‘소아용 인공혈관’ 관계부처 함께 나서 공급 이끈다

국내 공급이 끊긴 소아용 인공혈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함께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시장 철수로 수급이 어려워진 고어사(社) 인공혈관의 국내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고어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혈관 등 제품은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지난 2017년 10월 고어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면서 이 제품을 국내에대이상 공급하지 않고 있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과 봉합사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고어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고어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봉합사는 공급이 가능하나, 인공혈관은 국내에 타사의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사

유로 공급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전문가에 따르면,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국내에 고어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어 공급 재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처 합동으로 고어를 직접 방문해 현재 국내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동안 치료재료 가격제도 개선 등을 설명하여 한국 내 공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혈관이 없어 심장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아와 부모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을 위해 고어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론빌딩 15층에서 개최된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미연 변호사, 박재필·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박철·이동훈 대표변호사. 사진 뒷줄 왼쪽부터 황서웅·김경수·최재웅·장은진·김하연·이지연·김남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기청정기·마스크’ 미세먼지에 안전할까?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150개 제품 안전성·성능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필터유를 중심으로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청정기 100개, 마스크류 50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감전보호,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는 필터류의 청정능력 등 성능조사를 수행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차단조치 및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입사원들이 지난 5일 인천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입사원, 인천 보육원 찾아 봉사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100여명이 지난 5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도부터 당해 년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보육원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이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임직원들이 기부금을 모금해 인천보육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

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동호회인 ‘어울림’ 직원들도 매월 별도로 방문해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보육원 김정수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에 힘입어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식품위생법, 형사 가중처벌도 주의”

법무법인 바른, 해설 출간기념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론빌딩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은 이날 세미나에 식품·제약사와 관련 협회 등 외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인 황서웅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제’를 주제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규정까지 신설되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표시광고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시광고 부분의 규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변호사가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유

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위해식품으로 한번 공표가 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영업자의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재검사 요청, 금지조치 해제요청 등을 잘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간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다. 단순 법령해석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 식약처 질의답변과 관련 판례까지 모두 소개했다고 바른 측은 밝혔다.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 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남곤(44기), 김경수(로스쿨 2기), 장은진(6기), 이지연(7기), 김하연(7기) 변호사가 모였다.

해설서는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간 집필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식품의약팀 팀장 김상훈 변호사는 “바른 식품의약팀은 향후 관련 분야의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